

**2021 대한민국 헌혈공모전
동화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블러드 트립

윤혜경



3학년 첫날이다. 벌써 초등학교 6년 중 절반이나 다녔다. 이제 막 3학년이 시작되었지만, 종종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우리 아빠의 말대로라면 초등학교를 반이나 다녔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혹시 아는 친구가 있으면 학교까지 함께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1학년들은 자기 덩치보다 큰 가방을 메고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갔다. 동생이 없어서인지 그런 1학년들이 참 귀여워 보였다. 그러다가 유난히 느릿느릿 걸어가는 한 아이가 내 눈에 들어왔다.

'어, 저기 저 가방은 2학년 때 짝인 기우의 것인데.'

익숙한 가방과 머리 모양이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 기우 뒤에 바짝 붙었다. 기우의 발걸음은 달팽이 같았다. 나는 기우의 가방을 툭 치며 말했다.

"한기우! 너 왜 이렇게 달팽이처럼 가?"

기우의 손에서 핸드폰이 툭 떨어졌다. 내 심장도 툭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 씨. 야! 강주미!"

"어, 진짜 미안. 핸드폰 보면서 가는 줄 몰랐어."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든 기우는 '휴'하고 한숨을 내 쉬었다.

"괜찮아. 안 깨졌네."

"다행이다. 근데 뭐 보느라 그렇게 기어가는 거야?"

"아, 어젯밤에 엄마한테 핸드폰 반납하기 직전에 새로운 게임을 하나 발견했거든. 너무 해보고 싶어서 아침에 엄마가 깨우기 전에 일어났잖아."

"새로운 게임?"

"응. 집에서는 못하니까 학교 가는 길에 잠시 해보느라....."

"재미있어?"

"이제 막 로딩됐어. 게임이 특이한 것 같아. 제목이 <블러드 트립>이야."

"블러드.....트립? 블러드는 피잖아? 트립은 여행이고. 피의 여행? 좀 무서운데? 그거 막 총 쏘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게임 아니야? 언니 오빠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말이야."

"나도 처음엔 그런 건가 했는데 아닌 것 같아."

기우가 슬쩍 보여준 핸드폰 화면에는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쓴 캐릭터가 있었다. 얼굴은 하얗고 손에는 빨간 하트 봉도 들고 있었다. 마치 요정 같았다.

"어머! 귀엽다!"

"이 캐릭터 이름이 나눔이래."

기우가 나에게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하려는데, 아침 등교 봉사를 하던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애들아, 아까부터 쪽 봤는데 너희들 학교는 안 가고 아침부터 길가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겠니? 지각할 것 같은데.”

“지금 갈 거예요.”

“너희들 몇 학년 몇 반이니? 아줌마가 선생님께 핸드폰 사용 지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려야겠다.”

“어어, 괜찮아요. 그러실 필요까지 없어요. 저희 아직 안 늦었거든요.”

우리는 서둘러 학교를 향해 뛰었다.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가쁜 숨을 내쉬었다.

“헉헉. 뛰기 싫어서 집에서 일찍 나온 건데 뛰어 버렸네. 그런데 기우 넌 몇 반이야?”

“헉헉. 나는 6반. 주미 너는?”

“나는 1반이야. 완전 끝과 끝이다.”

“그러게. 그럼 잘 가.”

3학년 수업은 2학년 때와는 좀 달랐다. 교과서에 글도 더 많아지고, 선생님은 발표 수업이나 토론 수업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았다. 반 친구들도 학교생활에 적응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행동했다. 저학년 때는 길게 느껴지던 수업 시간도 짧게만 느껴졌다. 나는 쉬는 시간 틈틈이 기우가 아침에 잠깐 보여줬던 나눔이라는 캐릭터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 나눔이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나누길래 이름까지도 나눔이인 걸까. 기억을 더듬으며 나눔이를 여러 번 그렸다. 집에 돌아가면 나도 그 게임을 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학교가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는 엄마가 시키기도 전에 손도 깨끗이 닦고 서둘러 숙제도 다 했다. 엄마가 간식으로 구워준 반쯤 탄 빵도 맛있는 척 먹고 방 정리까지 했다. 작전을 시작할 시간이다!

“우리 주미가 3학년이 되더니 의젓해졌네. 엄마 잔소리가 필요가 없겠어.”

“엄마. 사실은 부탁이 있어요. 핸드폰에 새로운 게임 하나만 내려받게 해줘요.”

“어쩐지, 네가 뭔가 바라는 게 있어 보이더라니.”

“아, 엄마 한 번만. 제발. 나 숙제도 다 했어요.”

“너 진짜 숙제 다 했지?”

“당연하죠!”

“딱 삼십 분 만이야!”

“네! 어머니!”

“자기 좋을 때만 어머니라지?”

엄마는 가늘게 뜬 눈으로 나를 보며 핸드폰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는 핸드폰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다. 아침에 기우가 알려준 대로 <블러드 트립> 게임을 내려받았다. 아바타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나와 닮은 모습으로 설정했다. 내가 좋아하는 빨간 리본도 달았다. 그리고는 주미짱이라고 이름을 정했다. 아바타 설정을 마치고 나니 게임이 곧 시작된다는 로딩 창이 떴다. 빈 주머니처럼 생긴 로딩 표시가 빨간색으로 100%를 향해 점점 채워져 간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주머니가 빨강게 다 채워지자 아침에 보았던 캐릭터 나눔이가 나타났다. 기우 핸드폰으로 슬쩍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귀여웠다. 그런 나눔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안녕! 내 이름은 나눔이야. 나는 이 게임 안에서도 살지만, 너희들 몸 안에도 살고 있지. 나와 같이 여행하며 임무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단계마다 미션을 해결하고 나와 함께 있는 친구들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해. 할 수 있겠어?”

“응.”

나눔이는 주미짱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가 터치를 하자 주미짱이 나눔이의 손을 잡았다. 곧 주미짱의 투명했던 혈관에 피가 도는 것이 보였다. 두 뺨은 복숭아처럼 발그스레 해졌다. 나눔이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몸속에서 쉬지 않고 흐르는 피, 바로 혈액 요정이야. 사람의 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 단 몇 시간도 살아있을 수 없어. 그런데 피에 이런저런 병이 생겨 아픈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사고나 수술 등으로 급하게 피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단다. 아무리 의술과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피는 만들어 낼 수가 없다. 만약 사람들이 헌혈로 건강한 혈액을 나누어준다면 많은 환자가 새롭게 삶을 살 수가 있어. 지금 게임 속에서 나의 피를 나누면서 주미짱이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말이야.”

“신기하다. 네가 혈액 요정이라니. 그리고 피를 나눠줄 수도 있다니!”

나눔이는 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았다. 가방 입구를 묶었던 끈이 풀어졌다. 마치 팝콘 기계에서 팝콘이 튀어나오듯 신기하게 생긴 것들이 마구 튀어나왔다.

“나와 항상 함께 있는 친구들을 소개할게.”

나눔이는 가장 먼저 가방에서 나온 빨간 접시 모양을 한 캐릭터의 손을 잡으면 말했다.

“애는 적이야. 적혈구라 빨간색이지. 적혈구가 뭔지는 아니?”

“아니 몰라.”

“적혈구는 폐에서 신선한 산소를 받아서 우리 온몸 세포 구석구석으로 운반해 주는 일을 하고 있어. 적혈구 안에는 붉은색인 헤모글로빈이 많이 있단다. 그리고 피 한 방울에는 약 3억 개의 적혈구가 들어있어. 엄청나지? 이 적혈구 덕분에 우리의 피는 빨강게 보이는 거야.”

“그렇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빨간 접시 모양 적혈구 적이가 나눔이의 설명에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눔이는 곧 두 번째 하얀 캐릭터의 손을 잡았다.

“애는 백이야. 백혈구지.”

“씩씩하게 생겼어. 군인 같아 보이기도 하고.”

“맞아.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침입자들을 무찌르는 역할을 하지. 주미가 아주 잘 봤네. 우리 몸에서 군대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야.”

“저 뽀죽뽀죽 술방울 같은 애는?”

나눔이는 하트 봉으로 술이를 가까이 데려왔다.

“술이. 술이는 혈소판이지.”

“혈소판은 뭐지? 그림판 같은 거야? 아니면 나무판?”

“하하, 아니. 다쳐서 상처에서 피가 나면 반창고를 붙이지? 그전에 피가 멈추도록 붓대로 상처 부위를 꼭 누르기도 하고. 다친 곳에서 피가 하염없이 계속 흐르지 않잖아.”

“맞아. 맞아. 나 2학년 때 자전거 배우면서 넘어져서 팔꿈치 다쳤는데 피가 금방 멈추더라.”

“바로 혈소판 술이가 피를 멈추게 해주는 역할을 해. 혈관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 손상된 혈관 벽에 혈소판들이 재빠르게 달라붙고 서로 엉겨 붙어서 피를 멎게 해주지.”

“우와. 그럼 혈소판 술이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 피를 흘리고 있었겠네.”

“그렇지. 네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 너는 지금 이 게임을 할 수도 없었을 거야.”

“어휴, 그런 말을 들으니까 좀 무서운데?”

“간혹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의약품 개발에 다음에 나올 친구가 크게 기여하기도 해.”

나눔이는 마지막 친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 친구는 혈장이야. 이름은 짱이. 혈장 안에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전해질, 영양소, 각종 화학물질, 항체, 혈액을 굳게 하는 물질 등이 가득 들어있단다.”

“우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

“앞으로 미션을 해결하면서 더 잘 알게 될 거야.”

“응, 알겠어.”

“친구들 소개도 마쳤고. 이 게임 안에서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임무들을 수행할 거야. 그때마다 네가 선택을 해야 해. 어떤 친구들을 이용할지. 어때? 재미있겠지?”

“응 그래. 한번 해보지 뭐.”

나는 손가락을 허공에 피아노 치듯 풀어주고 시작 버튼을 눌렀다.

1단계 미션은 상처가 심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친구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진 채로 울고 있었다. 피도 많이 흘렸다. 주미짱은 손수건으로 상처가 난 부위를 꼭 눌러주고, 나눔이가 가방 속 친구 중 한 명을 선택했다. 바로 혈소판 술이었다. 나눔이가 내려놓은 가방에서 나온 혈소판 술이는 나오자마자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 상처 부위에 달라붙었다. 혈장인 짱이가 옆에서 술이에게 무언가를 건네주자, 피가 더 빠른 속도로 멎었다.

“짱이가 도울 줄을 몰랐네.”

“짱이한테는 혈액을 굳게 하는 성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피를 더 빠르게 멈추게 할 수 있어.”

“해냈어!”

“멋지다!”

하지만 기뻐할 새도 잠시, 다음 미션을 위한 버튼이 나타났다. 주미짱과 나눔이는 다시 길을 떠났다. 게임 속 세상은 마치 신나는 놀이 공원 같았다. 미션을 수행한다기보다는 재미있는 소풍을 경험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대나무가 가득한 언덕을 넘자, 2단계 미션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오두막집이 나타났다. 내 지시에 따라 주미짱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듯 스산한 기분이 들었다. 나눔이가 따라 들어서자 대문이 저절로 닫히고 덜컥 잠겨 버렸다. 그 순간 방 한편에서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쏟아져 나왔다.

“백이가 필요해. 지금 당장!”

첫인상이 군인 같았던 백혈구 백이를 선택했다. 나눔이의 가방에서 나온 백혈구 백이는 역시나 전사처럼 늠름하게 싸웠다. 백이와 함께 나온 여러 종류의 백이 친구들은 바이러스를 에워싸고 한입에 삼켜 없애 버리기도 하고 백이가 가지고 있는 무수한 알갱이들이 무기가 되어 바이러스를 모두 처치했다.

“이번에도 성공했어!”

“후유, 이번엔 좀 무서웠어.”

“정말 잘했어. 조금 아슬아슬했지만 말이야.”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지자 잠겼던 문이 다시 열렸다. 오두막집 밖으로 나와 다시 길을 걸었다. 어느덧 엄마와 약속한 시각이 오 분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점점 마음이 다급해졌다. 바로 그때 커다란 나무 아래 두더지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두더지는 우리를 보며 말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약이 필요한데, 좀 만들어 줄 수 있을까?”

3단계 임무는 바로 의약품 만들기였다. 주미짱이 나눔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피로 약을 어떻게 만들어? 이거 미션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처음에 너에게 설명해준 것을 잘 생각해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 있는 친구는?”

나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아! 아까 나왔던 짱이, 혈장이구나!”

“맞았어! 너 정말 대단하다!”

짱이는 나눔이 가방에서 나와 두더지의 비커 속으로 쏙 들어갔다. 두더지는 환하게 웃으며 작은 봉투를 건넸다.

봉투에는 초대장-마지막 미션-라고 적혀있었다.

“이제 마지막이야!”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의 열림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핸드폰 창에 알림 메시지가 떴다.

가까운 헌혈의 집에서 코드를 찾아 카메라로 찍으면 미션성공!
나눔이와 직접 만나고 헌혈도 실천해 보세요.
안타깝게도 만 16세 이하는 헌혈이 불가합니다.
대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께 헌혈을 권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헌혈은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나눔입니다.

초대장이 사라지고 나눔이가 다시 나타났다.

“함께 여행하며 미션을 수행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많이 배웠어. 그런데 마지막 미션은 어떻게 해야 해?”

“가까운 어른들에게 직접 헌혈을 실천하도록 부탁해 보는 건 어때? 꼭 그 사람이 헌혈하지 않더라도 괜찮아. 대신 함께 헌혈의 집에만 가도 돼. 그곳에서 숨어 있는 코드를 스탬프로 찍으면 <블러드 트립>의 모든 미션을 성공하게 되는 거야. 어때? 도전해 보겠어?”

때마침 엄마와 약속한 시각이 다 되었음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다. 나는 거실로 달려 나갔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있었다.

“엄마, 헌혈하러 가실래요? 왜냐면.....”

나는 나눔이와 함께 한 게임 속 미션과 나눔이가 해준 이야기들을 엄마에게 미주알고주알 털어놓았다. 내 말을 가만히 다 듣던 엄마의 눈이 점점 촉촉해졌다. 내 이야기는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은데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갑자기 왜 울어요?”

“응, 엄마가 주미를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려고 하네.”

“나 낳았을 때?”

“원래는 11월에 태어났어야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에 갔거든. 그때 급하게 수술로 두 달이나 먼저 네가 세상에 나왔잖아.”

“응. 나도 알아. 나 2학년 때 엄마가 얘기해줬잖아요.”

“그때 엄마가 출혈이 무척 심했었다. 피가 멈추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수술 중에

다른 사람의 피를 다섯 팩도 넘게 받았다. 그때 수혈을 받지 못했더라면 아마 지금 이렇게 주미를 안을 수도 없었겠지. 그런 감사한 마음을 잠시 잊고 살았네.”

“수혈이 다른 사람 피를 받는 거야?”

“응. 사람들이 헌혈해서 모은 피를 엄마가 주삿바늘로 받았어. 피는 우리 몸속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주고 노폐물과 쓰레기를 받아서 내보내지. 그렇게 사람을 살게 하는 거야.”

“그럼 헌혈해서 피를 나눠준 그 사람들은 언제 죽어요?”

“아하, 주미야, 피는 우리 몸에서 계속 생겨나고 있어. 우리 몸 뼈 깊은 곳, 골수라는 곳에서 혈액 세포들을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어. 그래서 헌혈해서 피를 나눠줘도 정상적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지. 아무리 헌혈을 많이 해도 끄떡없단다.”

“아휴, 난 또. 죽는 줄 알았지. 그래서 <블러드 트립>의 마지막 미션이구나 생각했네.”

“하하하. 그랬구나. 마침 아빠가 오늘 일찍 퇴근하시니까, 함께 헌혈의 집에 가보자.”

“좋아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집 근처에 있는 헌혈의 집으로 갔다. 헌혈의 집에 들어서자 나보다 훨씬 큰 나눔이가 나에게 손을 흔들어서왔다. 나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들어 나눔이에게 달려가 안겼다.

“나눔아!”

커다란 나눔이는 당황한 듯 잠시 굳어버렸지만 곧 나를 다정하게 토닥여 줬다. 물론 나도 게임 속 나눔이랑 다른 존재라는 걸 알고 있다. 헌혈의 집에서 만난 나눔이도 꽤 귀여웠다.

엄마와 아빠는 곧장 헌혈 전 검사를 하고 간호사 선생님과 상담도 했다. 그런데 아빠만 통과했다. 엄마는 저혈압이라나 뭐라나 그것 때문에 헌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우리 가족 대표로 헌혈을 하게 된 아빠는 팔뚝에 주삿바늘을 꽂고 주먹을 쥐었다 펼쳤다 했다. 그럴 때마다 시소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기계에 놓여있던 네모난 혈액 주머니가 아빠의 피로 점점 채워져 갔다.

꼭 게임 시작의 로딩 중 표시를 보는 것 같았다.

누군가를 위한 새로운 삶이 저 주머니에 로딩되고 있는 거라니 참 신기했다. 나도 어른이 되면 저 작은 혈액 주머니에 내 피를 로딩해서 생명을 나눠야지 하고 결심했다. 그러고는 간호사 선생님이 나눠준 작은 책자를 보다가 게임의 마지막 코드를 발견했다.

“앗싸, 찾았다!”

코드를 찍자, <블러드 트립> 마지막 미션 수행 성공 표시가 나오며 게임 속 나눔이가 다시 나타났다.

“축하해! 해냈구나. 헌혈로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 마음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꼭 기억해줘!”

“응. 나도 이다음에 어른이 되면 꼭 헌혈할게. 그렇게 생명을 나눌게.”

게임 속 나눔이도, 헌혈의 집 나눔이도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